

恩山別神祭의 音樂的 研究

韓 萬 榮 · 李 輔 亨

東洋音樂研究所

I. 머리말	⑤ Texture
II. 儀 式	⑥ 形 式
1. 社 會 的 背 景	3. 舞 隔 伴 奏 音 樂
2. 儀 式 的 構 成	① 構 成
III. 音 樂 的 特 性	② 長 短
1. 音 樂 的 構 成	③ 旋 法 과 旋 律
2. 巫 歌	④ Texture
① 構 成	⑤ 形 式
② 編 成	4. 大 吹 打 와 農 樂
③ 長 短 과 리듬	5. 細 樂 吹 打
④ 旋 法 과 旋 律	IV. 맺는말

머 리 말

韓國傳統音樂에서 宗教儀式에 쓰이는 音樂을 가려보면 梵唄와 같은 佛敎儀式音樂이 있고 文廟祭禮樂과 같은 儒敎儀式音樂이 있고 재수굿, 오귀굿, 당굿과 같은 巫儀式에 쓰이는 音樂이 있다. 巫儀式音樂은 그 儀式의 機能으로 보아서 재수굿과 같은 家祭 오귀굿과 같은 慰靈祭, 당굿과 같은 洞祭로 구분될 수 있는데 음악적 특징으로 보아 家祭나 慰靈祭보다 洞祭가 다채로운 편이다.

洞祭는 본래 巫의 歌舞로 행해지는 것이지만, 차츰 農樂으로 행해지는 型和 獻爵讚祝으로 행하는 型이 갈려 나간 것 같다. 지금 행하여지고 있는 洞祭 가운데 歌舞로 행하여지는 型은 주로 東海岸지방에서 별신굿이라는 이름으로 행하여지고 있으며 그밖에 서울지방에서 당굿 京畿南部地方에서 대동굿, 濟州道에서 당굿이 간혹 행하여지고 있으나 江原道와 慶尙道內陸地方과 全羅, 忠淸道地方에서는 歌舞로 행하여지는 洞祭를 거의 찾아볼 수 없다. 다만 恩山別神祭가 아직도 행하여지고 있어서 歌舞로 행하는 것으로는 오직 하나 남은 것이다. 恩山別神祭는 湖西·南에서 世襲巫의 歌舞로 행하는 洞祭로는 유일하게 남은 것이며 의식과

그 편성이 대규모로 되어 있다.

1965년에 無形文化財 第 號로 지정되었다. 李於仁蓮(藝名 朴언년 女 1894. 9. 18日生 忠南 窺岩面 窺岩里 150番地) 단골(世襲巫)이 歌舞의 儀式 保有者로, 劉尙烈(1898. 6. 14日生 扶餘郡 恩山面 恩山川里)과 白南龍(1901. 7. 5日生 上同)이 祭儀式的 大將 保有者로 지정되었다. 同 恩山別神祭는 지정될 당시에 保有者의 對談을 通하여 조사되었을 뿐 실제 演出되는 儀式과 그 音樂은 조사된 바 없다. 本研究은 1976년 4月 8日~11日까지 行하여진 恩山別神祭의 儀式音樂을 現地調査한 것이다.

II. 儀 式

1. 恩山別神祭의 背景

恩山은 忠南扶餘에서 西南쪽으로 白馬江을 건너 15里쯤 떨어진 七百餘戶의 큰 마을로 扶餘郡 恩山面 所在地로 市場과 國民學校와 中學校가 있다. 예전에 扶餘, 公州, 青陽, 禮山, 舒川을 通하는 交通要地로 驛院이 있던 곳이기도하다.

恩山の 北에는 堂山이라는 80여m의 작은 산이 있고 西에는 恩山川이 흐르며 東으로는 錦江이 肥沃한 平野를 끼고 있어서 交通要地인 恩山에 隣近의 產物이 모여들어 成市를 이루던 小邑이다.

堂山에는 적벽이 恩山川을 끼고 있는데 堂山西南쪽 양지 언덕에 神堂이 있으니 上堂이라 부른다. 또 市場의 西쪽에는 조그만 廣場이 있는데 여기를 下堂이라 부른다. 上堂은 一坪쯤 넘는 세멘트담에 기와를 얹은 맛배집으로 앞에 두쪽문이 달려 있다. 上堂 正面 벽에는 山神圖가 걸려 있고 右壁에 福信將軍像, 左壁에 土進大師像이 걸려 있다. 畫像은 새로 복사한 것을 붙였고 옛것은 門위에 다시 붙였는데 새것은 졸렬한 畫法이고 차라리 옛것이 우수해 보였다. 堂의 앞과 양 옆에는 20여坪의 마당이 있고 주위에 철책을 둘렀고 鐵門을 달았다. 堂의 뒤에는 樹林이 둘러 있으며 鐵門에는 계단이 있고 이 계단을 내려 두어 길 아래에는 넓은 廣場이 있다. 下堂은 2百餘坪의 넓은 마당이며 그 東면에 큰나무가 있으니 神木으로 바른다.

恩山에서는 언제부터인지 모르나 아주 옛날부터 이 上堂, 下堂을 中心으로 別神祭를 지내 왔다. 恩山の 別神祭는 地域民의 信仰에 따른 洞祭의 일종이다. 이러한 地域民이 참가하는 民間信仰儀式은 韓國의 어느 地域이나 있는 것으로 당곳, 서낭곳, 산신곳, 별신곳, 대동곳 등으로 부른다.

恩山の 주민들은 別神祭가 羅唐軍에 항전하던 百濟光復軍의 慰靈祭라 한다. 上堂에 모신

神像에 福信將軍은 百濟再建에 힘썼던 三十代王武王의 從子인 鬼室福信일 것이며 土進大師은 역시 百濟再建에 힘썼던 道探大師일 것으로 추측되어 오고 있다.⁽¹⁾ 老人들의 이야기로는 恩山이 百濟復興을 위해 싸우던 싸움터이며 많은 光復軍이 戰死한 곳으로 옛날에 恩山地方에 病魔가 휩쓸고 兇事가 빈번한 일이 있더니 한 古老의 꿈에 神靈이 나타나서 光復軍의 遺骨 安葬과 慰靈祭를 부탁하니 그 때부터 別神祭를 지냈다한다.

이와 비슷한 洞祭의 由來에 관한 傳說은 여러 곳에 있는 만큼 恩山特有의 것이라 할 수 없으며 恩山別神祭도 韓國에서 널리 行하는 洞祭의 한 類型으로 보는 것이 옳다고 하겠다.

恩山別神祭는 住民들이 地域의 安寧을 바라는 儀式인 만큼 住民이 主動이 되는 것이며 住民을 代表하는 有志들의 모임을 요세는 期成會라 부른다. 別神祭 거행에 대한 發議가 있어 合議가 되면 먼저 大將, 中軍, 執事, 化主 등 發儀에 主役을 신출하고 別神祭의 經費調達, 儀式節次決定에 대하여 의론한다.

別神祭는 수백명의 인원을 동원해야하고 祭에 參觀하는 民衆이 수만을 헤아리므로 住民의 信仰에 대한 問題와 함께 商人들의 經濟問題, 官廳의 治安問題가 따르므로 住民, 商人 官廳의 相互協力이 요구되고 있다. 住民들은 地域民의 安寧과 財福에 관련된 信仰問題이므로 수백명의 人力과 수백석의 財力의 소모에도 불구하고 發儀에 적극적이며, 商人들은 많은 外地人들의 宿泊과 買食에 따른 經濟的 利潤을 目的으로 많은 經費를 부담하면서 협력하고 있다. 官廳에서는 治安과 秩序維持에 따른 여러 問題가 發生하므로 別神祭를 許可事項으로 다루고 있으나 祭儀뿐만 아니라 雲集한 各種 雜戲에 의하여 형성된 축제 분위기를 도구로 住民의 不滿을 解消하는 權能을 인정하고 있다. 또 이런 地域社會의 集團的인 祭儀로 住民의 團合과 愛鄉心을 鼓吹시키는 구실을 인정하고 있다.

2. 儀式의 構成

恩山에서는 每年 山祭를 지내고 3年만에 大祭인 別神祭를 보냈다 한다. 70餘年에는 每年 지낸 것으로 調查報告된 것과⁽²⁾ 「每歲元正必致虎而祭之 三年而一大祭」⁽³⁾라는 古記로 봐서 예전에는 定期的으로 거행된 것같으나 日政時부터는 경비문제로 중단되었고 해방후 다시 부활되었으나 1959年後에 다시 중단되었다.

1965年 重要無形文化財 第9號로 지정되어 다시 부활되어 3年마다 행하였으나 지난번에는 大洪水가 있어 恩山川이 넘쳐 큰 災害가 생겨 중단했고 이번에 하게 된 것이다.

恩山 古老들의 말과 無形文化財 調查報告書⁽⁴⁾에 의하면 恩山別神祭는 밤이 땅에서 나오기

(1) 任東權 「恩山別神, 祭韓國民俗學論攷(서울·宣明文化社) 1971

(2) 朝鮮總督府 調查資料集 (6) 1938

(3) 李叢純記

(4) 任東權, 恩出別神祭無形文化財 調查報告書, (1965. 9)

전 吉日을 擇하되 대개 2月이 되며 閏日은 피하는데 擇日된 吉日을 前後하여 13日間 거행 된다.

이것을 節次順으로 적으면 다음과 같다.

- 第1日 진대베기
- 第2日
- 第3日 꽃받기
- 第4日
- 第5日 別神올리기
- 第6日 行軍과 祝願
- 第7日 行軍과 祝願
- 第8日 ”
- 第9日 ”
- 第10日 別神 내리다, 下堂굿
- 第11日
- 第12日 火主만의 獨山祭
- 第13日 장승 세우다.

이번 別神祭에는 經費와 人力을 아끼기 위하여 5日로 줄이어 굿을 했다.

- 第1日 진대베기
- 第2日 꽃받기, 別神올기, 行軍과 祝願
- 第3日 別神내리기, 下堂굿
- 第4日 獨山祭
- 第5日 장승 세우기

調査報告書에 나타난 祭儀任員(祭官)은 大將, 中軍, (中將), 司令執事, 先陪裨將, 後陪裨將, 通引, 化主, 肉化主, 別座, 祝官, 巫堂, 造花者樂工人, 農樂手, 旗手, 祭物運搬者 등을 記錄하고 있다. 이번 別神祭에 나타난 것은 위와 大差가 없으나 이밖에 卒兵, 大將은 別神祭의 가장 높은 이로 別神祭를 총통괄하고 지휘하는 職責이며 人望이 있고 經費調達의 能力이 있는 이로 정한다. 武將戒服에 戰笠을 썼고 孔雀尾를 달았다. 行軍時에는 白馬를 탄다. 손에는 지휘봉을 들었다.

中軍은 大將 다음 높은 이로 大將을 補佐한다. 대장과 같이 武將服에 戰笠을 썼다. 行軍時에는 검은 말을 탄다.

司令執事…大將의 命을 執行하는 이로 검은 더그레에 紅笠을 썼다. 行軍時 검은 말을 탄다.

先陪裨將…大將의 前方을 護衛하는 武將으로 武服에 戰笠을 썼다. 行軍時에 검은 말을 탄다.

後陪裨將…大將의 後方을 護衛하는 武將으로 武服에 戰笠을 썼다. 行軍時에 검은 말을 탄다.

通引…大將을 待從하는 少年으로 紅袞자에 紅笠을 썼다. 行軍時에 乘馬하고 大將을 待從한다. 通人은 2名이다.

化主 : 火主로 쓰기도 하는데 別神祭의 祭主로 祭儀에 참가하며 祭物일체를 참가하는 이로 부정한 일이 없는 가장 清潔한 이로 定한다. 化主의 平服으로 흰 두루마기를 입는다.

肉化主…버금가는 化主로 祭物 가운데 肉物을 마련하는 이이다.

別座…化主를 補佐하여 祭儀와 祭物마련하는 일을 돕는다. 別좌는 2人을 정한다.

祝官…別神祭에 祝文을 읽는 이로 住民 가운데 有識한 이로 定한다. 祝文에는 山祝祝, 將軍祝, 洞民祝이 있다. 祝官은 2人으로 정하며 平服으로 두루마기를 입는다.

主巫…別神굿을 행하는 당골 무당으로 굿儀式과 歌舞에 능한 무당으로 定한다. 굿을 행할 때에는 원삼에 흰 꼬깔을 쓴다.

助巫…主巫를 돕는 당골 무당으로 巫服은, 主巫와 같은 것이지만 이번 別神祭의 助巫는 主巫의 어린 孫女로써 붉은 치마 노란 저고리에 남패자를 입고 不戰笠을 썼는데 이것이 劍舞服으로 보이며 恩山別神祭의 巫服과 같지 않다.

樂工…三絃六角 樂手로 원래는 黃服에 草笠을 쓰지만 이것을 갖출 수 없을 때에는 平服 두루마기를 입는다. 六角잡이는 피리잡이 2, 젓대잡이, 해금잡이, 장고잡이, 북잡이 6人으로 구성되는 것인데 이번 別神祭에는 피리잡이 1, 젓대잡이 1, 장고잡이 1, 북잡이 1등 4人으로 되어 있어 구색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六角잡이는 巫樂手를 대신 쓰는 것이며 行樂時는 行樂을 연주하나 굿청에서는 巫樂手로 지나위를 연주하므로 두가지 구실을 하고 있다.

農樂手…農樂手는 팽과리, 징, 장구, 북, 쇠납으로 編成되었다. 쇠납手는 남색 周衣를 입었고 팽과리, 징, 장구, 북잡이는 바지 저고리에 꼬깔을 썼다. 農樂手는 行軍時에 農樂을 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行軍時 연주하는 音樂이 일반 農樂가락이 아니고 行樂에 가까우므로 行軍時 農樂은 行樂手의 구실을 한다. 胡笛, 장고, 북 팽과리는 大吹打編成에 가깝다. 行軍의 先頭에는 나팔手 2人이 있다. 行軍이 끝나면 農樂의 자진가락을 친다.

旗手…別神祭에 쓰이는 旗에는 大旗司令旗, 令旗, 二十四方旗, 陰陽旗 五種이 있다. 旗

手는 令旗手 2人, 大旗手 1人 司令旗手 1人, 二十四方旗手 24人, 陰陽旗手 4人이 있다. 旗手는 赤색자나 남색자를 입고 본래 쓰던 모자는 戰笠이었을 것이나 이번 것은 붉은 冠形의 모자를 썼는데 이것은 요새 임의로 만든 것 같다.

大旗...大旗는 別神祭의 神旗로 主旗가 된다. 15尺 정도의 긴 竹干으로 깃대를 만들었고 이 끝에 평장목으로 깃봉을 만들고 그 밑에 백지로 가늘게 썰어 만든 술을 달았다. 깃폭은 폭이 2尺 길이 10尺정도의 흰 베로 만들었고 가에는 검은 지네발을 달았으며 깃폭에는 「別神大旗」라 썼다. 깃폭은 길이로 세워 윗쪽에 가름대를 달았으며 가름대 양끝에 끈을 달아서 이 두 끈을 깃봉 밑에 매달았다. 가름대의 양끝에 매듭을 여러개 맨 끈을 달았다.

司令旗...司令旗는 大旗와 形態가 같으나 좀 작고 「恩山別神司令旗」라 써 있다.

令旗...令旗는 5尺정도 竿干으로 깃대를 내고 깃대 끝에 笏처럼 만든 三枝槍으로 깃봉을 내었고 깃봉 밑에 백지를 가늘게 썰어 만든 술을 달았다. 깃폭은 폭이 2.5尺 정도 正方形의 黃色布로 중앙에 赤色으로 令字를 써 붙였다.

二十四方旗...7尺정도 竹干에 끝에 鋒을 다는 것이나 이번 發儀에서는 略하고 있다. 깃폭은 폭이 3尺정도의 正方形 白布에 먹으로 二十四方位神像이나 八괘를 그리고 있다.

陰陽旗...二十四方旗와 旗形이 같다.

燈手...別神祭에는 球燈과 花燈이 쓰인다. 球燈이 6개, 花燈이 6개 쓰이므로 燈手는 12人이다. 燈手는 少年들이며 흰 바지 저고리에 테를 매고 燈을 머리에 인다. 꽃받기에는 紙花盤을 이고 온다. 花盤은 둥근 항아리에 紙花를 꽂은 것이다.

兵卒...戰服에 戰笠을 쓰는 것이 원칙이나 이번 別神굿에는 高等學生을 참여시켰기 때문에 學生服에 赤色 혹은 靑色 패자를 걸치고 머리는 정자관形의 모자를 썼기 때문에 모양이 좋지 않다. 兵卒은 30여명이 되며 竹槍을 들었다.

이번에 행한 別神굿의 儀式은 다음과 같이 構成되었다.

(1) 진대베기

別神굿은 진대베기로부터 시작된다. 진대란 장승을 말한다. 祭官과 任員이 衣將과 旗識을 갖추고 行樂을 울리며 行列지어 진대를 베러간다. 行列編成은 진대베기, 꽃받기, 行軍틀기 등 모든 行列에서 같다. 行列編成은 다음과 같다.

- ① 나팔, ② 令旗, ③ 大旗, ④ 司令旗, ⑤ 二十四方旗 및 陰陽旗, ⑥ 農樂, ⑦ 化主,
- ⑧ 執事, ⑨ 先陪裨將, ⑩ 三絃六角, ⑪ 通引, ⑫ 大將, ⑬ 通引, ⑭ 中軍, ⑮ 後陪裨將,
- ⑯ 座首, ⑰ 祝官, ⑱ 別子, ⑲ 巫女, ⑳ 兵卒, ㉑ 洞民과 來賓 順으로 되었다. 祭官, 任員, 洞民은 行列지어 恩山里에서 二十里 內外 林地를 擇하되 대개 東北方으로 진대베러 간

다. 擇地에 도달하면 참나무 4개로 진대를 정하고 巫樂의 伴奏로 巫歌로 祝願하고 農樂과 三絃六角이 同時에 울리는 가운데 진대를 베어 베고 다시 全員이 行軍하여 化主 집에 와서 이것을 보존하여 둔다.

(2) 꽃받기

당에 바칠 꽃盤 6개와 花燈 6개를 받으러 行列지어 가서 받아 오는 절차이다. 꽃盤과 花燈은 淨한 절에 미리 부탁하여 만든 것을 받아 오는 것인데 받으러 가는 行列은 진대베기 경우와 같으나 巫女는 따라 가지않는다. 꽃받어 올 경우에는 ① 나팔, ② 令旗, ③ 大旗, ④ 司命旗, ⑤ 二十四方旗 및 陰陽旗, ⑥ 農樂, ⑦ 花盤 및 花燈, ⑧ 化主, ⑨ 執事, ⑩ 先陪裨將, ⑪ 三絃六角, ⑫ 通引, ⑬ 大將, ⑭ 通引, ⑮ 中軍, ⑯ 後陪裨將, ⑰ 座首, ⑱ 祝官, ⑲ 別子, ⑳ 兵卒, ㉑ 洞民 및 來賓順으로 行列 지어 들어 온다. 花盤과 花燈은 우선 化主의 淨한 房에 보관하였다가 上堂 별신 올릴 때 쓴다. 이번 別神祭에서는 第2일에 꽃받기와 上堂올리기는 當日에 했으므로 꽃받은 行列이 恩山國民學校庭에 들어가서 列지어 선 다음 行政官署 主催의 式을 거행한 다음 바로 上堂으로 行列하여 가서 上堂에 올라가서 各旗는 세워놓고 花盤은 堂의 神像 앞에 陳列해놓고 花燈은 堂의 뜰에 나무를 세우고 걸어 놓았다. 이 꽃들은 別神굿이 끝나면 化主 집에 갖다 놓았다가 贊助者들에게 나누어 주는데 꽃받은 이는 꽃을 집안에 두면 吉하다 하여 一年內 房에다 소중히 달아둔다.

(3) 別神올리기(上堂굿)

上堂굿을 別神올린다 하는 것은 上堂本祭가 있기 전에 祭物을 올리는데서 나온 것 같다. 上堂굿 하는 날 化主 집에서 洞民들에게 祭物을 들리우고 祭官과 任員이 列지어서 上堂에 오른다. 上堂굿은 꽃받은 다음날 하는 것이나 이번 別神굿은 時日을 줄이기 위하여 꽃 올리기와 함께 행하였다. 祭物올리는 儀式도 매우 엄숙하다. 祭官과 任員이 모두 衣裝과 旗識을 갖춘 다음 洞民들께 祭物을 지워 行列하여 上堂에 오른다. 祭物올리는 行列은 ① 나팔, ② 令旗, ③ 大旗, ④ 司令旗, ⑤ 二十四方旗 및 陰陽旗, ⑥ 農樂, ⑦ 祭物, ⑧ 化主, ⑨ 執事, ⑩ 先陪裨將, ⑪ 三絃六角, ⑫ 通引, ⑬ 大將, ⑭ 通引, ⑮ 中軍, ⑯ 後陪裨將, ⑰ 座首, ⑱ 祝官, ⑲ 別子 順으로 되었다. 꽃올리기와 함께 할 경우에는 祭物은 그 꽃 다음에 오른다.

祭物은 27種으로 30여명의 洞民이 各各 祭物 하나씩을 지고 行列에 따라 들어 오는데 깨끗하게 몸을 씻고 옷을 깨끗이 입고 입에 조그마한 白紙를 물고 不淨을 막고 있다.

祭物은 백편 진편과 같은 떡類, 감, 밤, 대추와 같은 果實類, 숙주, 도라지, 고사리 두부와 같은 나물類가 있으며 쌀, 콩, 팥과 같은 곡식을 생으로 쓰는 곡식類도 있다. 돼지 담

과 같은 肉類는 따로 들여오며 이밖에 술이 들어온다. 堂에 祭物을 陳設하는데 床을 쓰지 않고 돛자리를 깔고 자리를 새로 사서 그 위에 陳設한다. 祭床은 山神과 別神 둘을 陳設한다. 陳設하고 一同 再拜한다.

陳設이 끝나면 단골이 굿을 한다. 무당은 원삼에 冪을 쓰고 당의 대뜰에 고당을 등지고 서서 歌舞를 하고 樂工은 자리에 무당을 둘러 앉았다. 樂工은 장고, 징, 피리, 것대이며 해금은 빠져 있다. 그 둘째에는 大將, 中軍, 化主 등 祭官과 任員이 둘러 섰다.

무당은 규암리 사는 李언년(女 82 부여군 規岩面 規岩里) 단골이며 樂工들은 모두 全北 裡里 群山 等地에서 온 才人들이었다. 무당은 먼저 살푸리장단으로 무가를 내었고 다음에는 아니리가 있고 신임장단으로 춤을 춘 다음에 巫歌를 불렀는데 그 旋律은 시나위형이었다. 樂工은 시나위로 巫歌에 伴奏했다. 助巫 李언년의 孫子 崔 가 巫舞를 추었는데 덩덕궁이(자진 굿거리) 장단이었다. 장고잡이는 巫歌나 巫舞에 口唄으로 바라지를 했다.

밤에는 化主, 肉化主, 別子, 祝官 등 祭官과 任員이 儒教式祭祀를 行한다. 降神 參神 瓊饗 讀祝 후에 百拜하고 주민들은 各各 소지를 올린다.

(4) 上堂 降神굿

祭祀 다음날 아침 祭官 任員 무녀 工人이 上堂에 降神굿을 한다. 上堂뜰에 대살바지(큰 고리짝에 쌀을 담은 것)를 놓고 그위에 강목으로 감은 大旗를 세워 놓고 祭官이 붙잡는다. 무당이 三絃 반주로 巫歌를 부른다. 巫歌는 살푸리장단이고 巫歌의 旋律과 三絃 그리고 장고잡이의 바라지는 시나위형 旋律이었다. 한 동안 巫歌를 부르면 祭官에게 降神이 되어 부들부들 팔이 떨리고 大旗의 깃대가 흔들리고 그 振動으로 大旗에 단 방울이 흔들린다. 방울이 흔들리면 神이 내렸다고 하며 만일 神이 내리지 않으면 祭官은 다시 목욕하고 大旗를 잡는다. 神이 내리면 上堂 降神굿을 마치고 陳設된 祭物은 化主집으로 철수하고 임원은 내려온다.

(5) 下堂굿

上堂 降神굿을 마치면 祭官과 任員은 行列하여 下堂으로 내려 온다.

下堂굿은 降神굿에 이어 하는 것이다. 下堂에 祭床을 차리고 祭床의 오른쪽에 大將, 中軍, 裨將, 執事. 通引 등 任員이 一列 橫隊로 관중 쪽을 향하여 앉고 巫女는 원삼을 입고 흰 冪을 쓰고 祭床을 등지고 서서 巫歌를 부른다. 樂工은 巫女를 향하여 둘러 앉되 장고잡이가 巫女 中央을 보고 正面에 앉아서 바라지를 받는다. 下堂굿의 巫歌의 音樂은 上堂굿과 같다. 巫歌, 三絃伴奏, 장고잡이의 바라지의 旋律은 시나위형이다. 巫歌의 伴奏는 살푸리, 시님장단이며 巫舞의 장단은 덩덕궁이다.

하당굿이 끝나면 주민들이 굿청에서 歌舞로 즐기는데 樂工을 소리시키기도 하고 住民들도 소리하며 즐긴다.

(6) 獨山祭

下堂굿 三日 뒤에 하는 것으로 化主가 別子만 데리고 堂下座에 있는 獨山祭壇에 가서 제를 지내되 儀式은 간단히 제상을 차리고 헌작과 火堯紙로 마친다. 이번 別神祭는 下당굿 다음날 행하였다.

(7) 장승제

하당굿 四日 뒤에 化主가 別子를 데리고 別神祭 첫날 베어 놓았던 진대를 洞口에 세우고 祭祀하는데 農樂을 울리는 가운데 흰주독축한다.

Ⅲ. 音樂的 特性

1. 音樂의 構成

恩山別神굿의 音樂은 그 儀式節次와 베어 놓고 따로 생각할 수 없다. 앞에서 이미 言及한 바와 같이 恩山別神굿의 儀式節次는

1. 진대베기
2. 꽃받기
3. 上堂굿
4. 上堂 降神굿
5. 下堂굿

의 다섯가지 席이 그 주요 節次이고 그 밖의 獨山祭와 장승세우기는 巫女들 끼리만의 일이어서 音樂이 따르지 않는다.

이제 이 다섯 席의 音樂을 살펴 보면 대개 다음과 같은 음악이 사용된다.

1. 진대베기

巫歌——祝願

農樂, 三絃六角——行樂

2. 꽃받기

三絃六角——行樂

吹打——行樂

農樂——到着時

3. 上堂굿

巫歌——

三絃六角——舞伴奏

4. 上堂降神굿

三絃六角

農樂

三絃六角——舞伴奏

巫歌——祝願

5. 下堂굿

巫歌

三絃六角——舞伴奏

이상에 살펴 본 바와 같이 音樂의 種類는 巫歌, 三絃六角, 吹打, 農樂의 4가지가 있다.

2. 巫 歌

① 構 成

恩山別神굿에 쓰이는 巫歌는 진대베기 上堂굿 上堂降神굿 下堂굿 등 4번이나 불리는데 그 음악은 祝願歌와 堂山굿의 두 가지가 불린다. 祝願의 辭說은 다음과 같다.

첫째를 잡으시니

경상도 경주는 김부대왕 치국이요

두번째를 잡으시니

전라도 전주는 공민왕이 치국이요

세번째를 잡으시니

충청도 부여 백제왕의 도음이요

네번을 잡으시니

평안도 평양은 기자왕의 치국이요

다섯번을 잡으시니

함경도 함흥은 단군의 치국이요

여섯번을 잡으시니

송도 송악산 왕건태조 치국이요

일곱번을 잡으시니

지금한양 이씨왕 등극허실적에

오백년 도음이던 무한년 치국이라

우리 조선의 팔만장안 억만가구

팔도구먼터 생길적에

거기 명기 떨어져서

어디로 간줄을 몰랐더니

주춤거리 내려오시다가

팔도구면터 마련허구
 거기명기 떨어져서
 어디간줄 몰랐더니
 주춤주춤 내려오시다가
 恩山티가 생겼구나
 더룡지당산 전통당산 할아버지
 우쭐세인 계석 낙성사나 제월제처
 이곳을 만들어 내려오실적에
 한어깨는 명준지 또한어깨 북준지며
 해달같은 바다괘정 달같이 둘러메고
 달같은 바다뱅경 해달같이 둘러메고
 좌우산천 바라보니
 물세도 장히 좋고
 산세도 장히 좋다
 경상도 태백산은 낙동강이 수구막고
 강원도 금강산은 임진강이 수구막고
 서울 삼각산은 동작강이 수구막고
 공주 제룡산은 부여 백마강이 수구를 막아
 일산봉 연마봉 문필봉 노인봉
 장자봉이 미쳤으니
 거부장자 날것이요
 충신봉이 비쳤으니
 열녀충신이 날것이요
 드턴지 이고나니
 에— 금년에 이정성이 발발비비어
 여러가족 여러진중이
 올해금년의 열두달 다 넘어가도
 걱정근심없고 수환차탄 없고
 산자타작 냉면계약
 어— 으였고
 놀랍고 두렵고
 그런일 없이
 뒤말기고 지저말게 주옵소사

그런데 이 辭說은 부를때 마다 들측 날측이 있고, 부르는 가락도 때마다 다르다. 또 그 반주 악기도 장구만 쓰기도 하고 때로는 징과 피리를 곁들이기도 하고, 助巫가 바라지로 곁들이기도 한다.

② 編 成

巫女(李언년)가 巫歌를 부를 때에는 장고와 피리가 반주를 하고 助巫가 바라지를 한다. 바라지는 맥이면 받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口唄 살푸리로서 시나위 가락을 부른다. 부르는

소리는 대개 「아, 어, 난티야」 등의 의미없는 Nonsense Syllable을 부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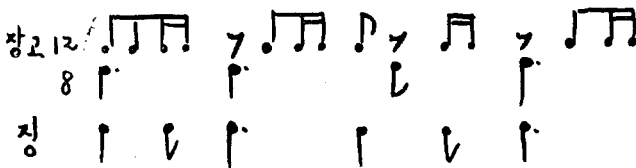
한편 下堂굿때의 巫歌는 다음과 같은 사설로 「堂山굿」을 부른다.

아환임금 굿이로다
 공심결요 남산은 본이로다
 조선은 국이요
 팔만사천 사두열이
 대월은 서른날에
 소월은 이십구일이며
 내리 굶어보니 땅은 이십팔수
 스물여덟 토장이요
 화궁천 비비천 사마도리천에
 열세왕을 마련힐제
 법은 정법이 국은 백제국입네다
 도를 잡으시니
 충청남도 부여군 구합면
 상동국이 올십니다
 이정성을 디디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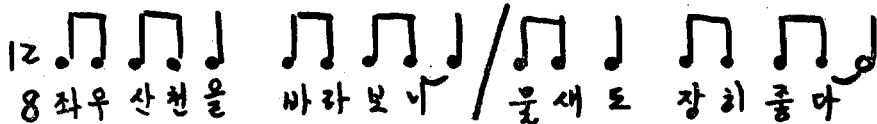
등등으로 「祝願」하는 소리와는 그 類를 달리하나, 바라지만 아니할뿐, 장고 징, 피리 등의 伴奏를 하는 것은 모두 같다.

③ 長短과 리듬

巫歌의 장단은 살푸리장단이 주를 이루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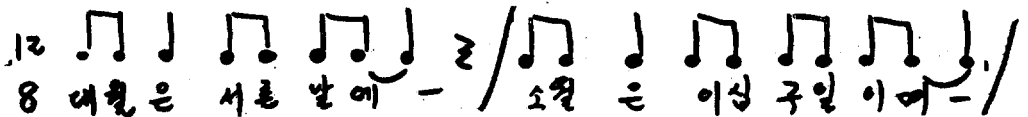


그러나 노래부분의 리듬은 樂譜 1에서 보는바와 같이



이처럼 12/8 보다는 6/4로 보는 편이 더 나올 정도로 Hemiola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堂山굿 소리에서도 같다.



④ 旋法和 旋律

祝願과 堂山굿에 나타난 出現音은 A, B, c, d, e, a의 6音이다. 이 가운데 C는 B로 떨어지는 性向을 띄우고 있어 南道, 즉 全羅道の 시나위調의 꺾는 목에 해당한다. 따라서 A는 쭈으로 내는 목에 해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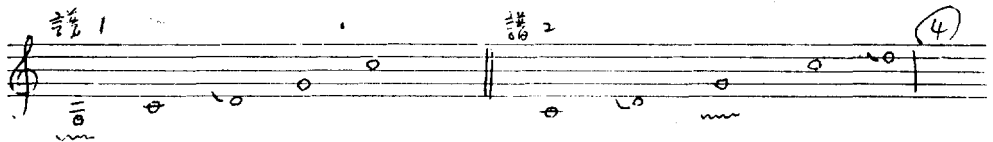
여기에서 散調에 나타나는 界面調와 비교해 보면, A보다 4도 아래의 E音, 즉 떠는 목이 巫歌에는 없다. 그렇다고 해서 옥타브위의 e音을 대신 떨지도 않는다. 여기에 비하면 散調는 반드시 E音이 나오고 떨게 마련이다.

그러나 旋法上으로 볼때는 역시 南道界面調인 시나위調이다.

또 旋律形은 高音에서 시작하여 차츰 下降하여 쭈으로 내는 목인 A音에서 한 句가 끝나게 되어 있다.

이점은 피리로 시나위를 연주할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즉 피리는 最低音이 평으로 내는 목에 해당하기 때문에 저음에서의 떠는 목은 없고, 옥타브위에서는 떨기도 하고 안떨기도 한다. 따라서 피리는 원칙적으로 시나위를 연주하는 악기이지 散調는 부적당한 악기가 아닌가 하는 추측이 든다.

즉 散調의 音階가 譜1과 같다면 시나위의 그것은 譜2와 같다.徐漢範 採譜 琴樂散調에 의함)



⑤ Texture

恩山別神굿의 巫歌의 Texture는 시나위 合奏스타일이어서 計算되지 않은 多聲音樂(polyphony)라 할 수 있다. 巫歌의 主旋律와 긴밀하게 융접되어 있는 樂器는 장고와 징뿐이고, 여타의 선율악기 즉 피리와 짓대는 주로 三音(떠는 목, 평으로 내는 목, 꺾는 목)과 장단(살푸리 장단)이라는 울타리 내에서 自由로운 對旋律을 即興적으로 만들어 나간다.

심지어는 助巫의 바라지도 맥이면 받는 形式과는 전혀 관계없이, 마치 피리나 짓대처럼 自由로운 對旋律을 即興적으로 부른다. 이때의 사설은 口癖 살푸리라 하여 「아—, 어—, 난 티여—」 등의 입타령(Nonsense Syllable)을 부른다.

그러나 印度의 Raqa처럼, 큰 테두리안에 Stereo-typed된 어떤 秩序가 있을 것이다. 그것은 音樂이 끝날때에 일제히 마추는 것으로 보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구체적으

로 어떤 것이나 하는 점은 앞으로의 課題라 할 것이다.

⑥ 形式

恩山別神굿에 사용되는 巫歌는 一定한 形式이 없고, 高音에서 차차 下降하여 평으로 내는 목인 A音에 이르러 길게 持續함으로써 한 마루가 끝난다. 대개 2~4장단이 한 마루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巫歌의 한 마루가 끝나더라도 餘他の 樂器나 바라지는 그냥 계속되고 있는 정도 하나의 특색이라 할 수 있다.

3. 舞踊伴奏音樂

① 構成

舞踊伴奏는 주로 三絃六角에 의하여 연주된다. 三絃六角은 원래 피리 2 짝대 해금 장고 북으로 이루어 지는 것이지만, 恩山別神굿에서는 巫歌의 伴奏로도 쓰이는 까닭에 북대신에 징으로 대신하였고 해금은 어떤일인지 빠져 있다.

굿에는 춤이 鬼神을 놀리는 것으로 必要不可缺의 것이어서 그 어느 席에도 다 들어 있다.

춤을 추는 순서는 대개 살풀이장단에서 시작하여 시님장단 덩덕궁이 장단 등으로 넘어가면서 점점 빨라진다.

또 피리와 짝대잡이들은 한참 시나위 가락을 불다가 口唄살투리를 하기도 한다.

춤의 構成은 처음에 살풀이 장단으로 시작하는데, 처음 두장단을 장고만 치다가 짝대와 피리가 불고 조금후에 巫女가 祝願歌나 또는 口唄 살풀이를 부른다. 그러면 징도 加勢한다. 이 살풀이가 끝나면 巫女가 다음과 같은 아니리를 한다.

어쨌던지 이정성 이벌거름 들으려고 우리 병진년 구나바지(그렁쵸)
 가정의 여러 중정에다 입에가서
 종군 대장님이나 순배비장에 오배비장에(예) 사명집사에 토인까지라도 한맘 한뜻되야(그렁쵸) 밤
 에는 새우잠에 낮에는 침동걸음에 이 정성을 드린즉(예)
 정성이 지극하면 지성이면 감천이며 공든탑이 무너질리 있겠는가(그렁쵸) 우리나라 대한나라 이부
 산에 복울빌어 성현같은 양반도두고(어)
 일곱칠성님네 칠성단에 복울빌어

정성을 드릴적에
 당산 할머니 당산 할아버지 모시고(어) 저기가서 복신장군 토신대사님 모시고 어떻게 지 즐거히 한
 번 노세
 신이야

아니리가 끝나면 「신이야」하고 信號한다. 그러면 곧 시님장단으로 시작하고 장고 징 피리

첫대가 齊奏하다가 차츰 춤이 高調되면 빠른 4拍의 덩덕궁이 장단으로 넘어 간다. 시님장단을 칠 때에는 口韻으로 함께 노래하기도 하지만 덩덕궁이 장단에서는 樂器만으로 연주한다.

② 長 短

살풀이 장단은 처음 序頭를 다음과 같이 장구로 낸다.

♩. = 70

장고 12/8

그러나 징의 리듬은 多樣하여 위와 같이 여러 變化形이 있다.

따라서 기본적 리듬 패턴은

12/8

이다.

다음 시님장단은 3+2+3+2로 10拍이 한 장단을 이룬다.

♩. = 160

장고 1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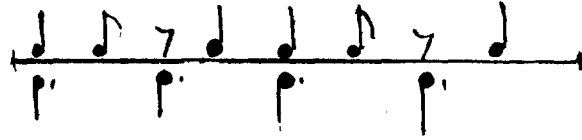
징

이 시님장단은 엇모리와 같은 것으로 대개 2장단이 한 Cycle을 이룬다.

그다음 곳의 춤에 제일 많이 사용되는 덩덕궁이 장단은 여러 變化形이 있다.

♩ =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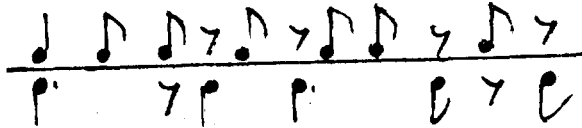
장구 $\frac{12}{8}$



또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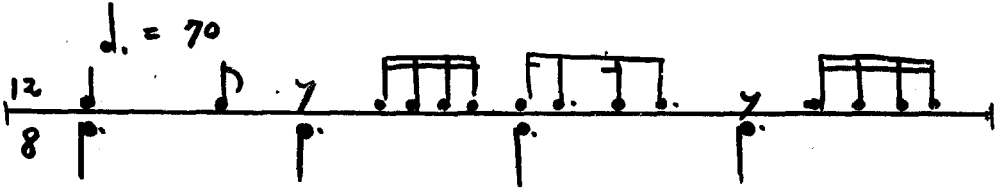
또는



등의 變化形이 있다.

이밖에 드물게 굿거리장단과 앓은뱅이 장단을 쓰기도 한다. 이러한 장단들은 굿이 끝나고 興興으로 놀때 사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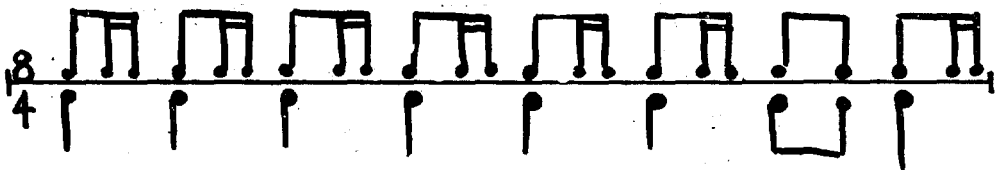
굿거리 장단은 경기도나 서울지방의 그것과 같다.



앓은뱅이 장단이란 일명 안진반이라고도 부르는데 드물게 偶數拍을 사용하고 있다. 李輔亨씨의 巫樂長短考⁽¹⁾에 의하면

「金堤工人 申觀山, 金俊鎬氏가 처준 안진반 장단은 「궁 따라 궁 따라 궁 따 궁 따라」하여 2分拍子로 4拍이지만 굿청에서 실제 들어본 것은 3拍 혹은 5拍等도 있어서 한배가 不規則한 것을 알 수 있다.」

라 했는데 恩山別神굿의 巫樂잡이인 김명선氏가 처준 例示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8拍이 한 장단을 이루고 있었다.



(1) 李輔亨 : 巫樂長短考, 文化人類學會 第三號 1970. 11

여기에서 재미있는 것은 第7拍에 반드시 「뎡뎡」하고 8분음표로 合長短을 치는 점이 특색있었다.

3 旋法和 旋律

巫歌에서 이미 설명한바와 같이 굿의 舞踊伴奏音樂은 시나위이다. 따라서 떠는 목, 평으로 내는 목, 꺾는 목의 3음이 主旋律를 이룬다. 피리와 짓대가 旋律樂器이고 때때로 口靫살풀이로 노래도 부르지만 그 가락은 器樂의 그것과 同一하다.

旋律의 맨처음 序頭는 대개 평으로 내는 목에서 시작하지만, 그 다음부터의 가락의 처음은 의례히 高音에서 시작하여 차츰 下降한다. 대개 3~4장단을 한 가락으로 삼는다.

④ Texture

巫歌를 부를 때와 마찬가지로 장구와 징 등 타악기는 一定한 장단을 반복하지만 피리 짓대 口靫 등의 선율은 自由로운 對旋律을 엮어 나간다. 즉 이러한 合奏는 시나위 特有的의 것이다.

⑤ 形 式

굿의 춤은 鬼神을 즐겁게 날리고 降神하기를 求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춤의 길이가 一定치 않다. 어떤 때는 빨리 降神하여 길게 춤출 필요가 없고, 또 어떤 때는 더디 降神하여 길게 추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 伴奏音樂도 一定한 形式을 갖기가 어렵다. 춤이 끝나면 樂器는 어떤 旋律을 불고 있었던 간에 얼른 평으로 내는 목을 불어서 終止感을 낸다. 따라서 그 音樂形式은 가락을 單位로 하여 반복된다. 한 가락은 대개 2~4장단을 한 單位로 하고 있다.

어떤 때는 춤이 끝나서 장고가 멎었지만 미처 가락이 끝나지 않아 樂器만이 혼자 그 가락을 끝마치느라고 부는 경우도 있다.

4. 大吹打와 農樂

원래 大吹打의 編成은 太平簫 자바라 나발 소라 북 징 장고 등이고 農樂編成은 胡笛(太平簫) 장고 북 쟁과리 징 나발 등으로서 編成上 약간의 差異가 있다. 그러나 恩山別神굿에서의 大吹打와 農樂은 胡笛 쟁과리 징 장구 북으로서 同一樂士들이 경우에 따라 大吹打와 農樂을 연주한다.

大吹打는 진대백이나 꽃밭기의 行進間에 사용되고, 農樂은 行列이 일단 目的地에 도착한 후에 자진가락으로 흥겹게 쳐서 한바탕 논다.

大吹打의 장단은 매우 단조로워서 二拍을 기본으로 한다.

♩ = 60-70

장고	♩	♩ ₃ ♩
꽁파리	♩	♩ ₃ ♩
징	♩	
북	♩	

行進은 한 걸음이 한拍到 해당되기 때문에 매우 느리다.

이때의 胡笛은 역시 시나위 가락을 분다. 나발은 이따금 뚜— 하고 長引하여 行軍의 앞길에 雜人을 禁한다.

5. 細樂吹打

行軍時에는 大吹打 外에도 細樂吹打가 行樂을 연주하는데, 이들은 원래 巫樂手로서 굿할 때 무용반주음악과 巫歌의 伴奏도 한다.

이번 別神祭에는 피리 것대 장고 북의 각 1人씩 4人이 참가하였다.

大吹打가 行列의 先頭에서 불고 가면, 이들은 行列의 뒤에서 大吹打의 拍子와 가락에는 전혀 관계없이 行樂을 연주한다. 그 음악은 다음과 같다.

이 악보에 의하면 한 장단의 길이는 매우 不規則하다. 왜냐 하면 피리와 장고가 연주하고 나면 것대가 連音を 불기 때문이다. 또 두번째 장단 부터는 피리와 것대가 함께 불지만 그 뒤에는 여전히 것대가 連音を 분다.

旋律도 매우 단조롭다. 주로 GCD의 音만으로 연주하는데, 이 行樂에서는 구체적으로 나

타나지 않지만 아마도 G는 떠는 목, C는 평으로 내는 목, D는 꺾는 목에 해당하지 않나 하는 느낌이 든다. 그렇다면 이것 역시 南道 界面調의 시나위 調에 屬한다고 보겠다.

IV. 맺는 말

恩山은 忠淸南道 扶餘郡에 屬하지만 漢江以南의 巫歌圈에 屬하며 全羅道의 巫樂과 같다. 즉 시나위圈에 屬한다. 巫俗에 쓰이는 낱말도 全羅道式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恩山別神굿에 사용되는 音樂은 巫歌, 舞踊伴奏音樂, 大吹打, 細樂吹打, 農樂 등이 있다. 巫歌는 祝願歌와 堂山굿소리의 2種이 쓰인다.

舞踊伴奏音樂은 三絃六角編成으로 연주되며 주로 살풀이, 시님장단, 덩덕궁이가 쓰이고 그 밖에 굿거리, 안진만도 가끔 사용된다.

大吹打와 農樂은 同一인이 同一한 樂器編成으로 연주하는데 大吹打는 쇠납이 시나위 가락을 붙고, 장단은 行進에 맞도록 2拍으로 반복한다. 한편 農樂은 行進이 끝나면 한결같이 2拍系의 자진가락으로 興겹게 친다. 따라서 農樂은 行運이나 굿의 한 「席」이 끝났다는 信號이기도 하다.

細樂吹打는 역시 巫樂手들이 담당하며 三絃六角 編成으로서 行進에 맞도록 2拍系의 장단을 쳐 나가며, 피리가락 뒤에는 반드시 짓대의 連響이 붙는다.

恩山別神굿은 그 규모에 있어서 數百인이 動員되는 대규모의 굿인데 아마도 東海岸 江陵의 別神굿(端午祭)과 함께 雙璧을 이루는 것이라 할 수 있다.

譜 1

산동어장안 ♩. = 70

祝願歌

이 만년 장
한 인생 채로

좌우 산천 은 바다 보너 , 문새도 장히 좋나 - 산 새도 장히 좋나 -

경 삼도 태백 산은 쌍룡 강이 수구 막고 -

강 원도 금강 산은 - - - 임진강이 수구 막고 -

서로 삼강 산은 - 동천강이 수구 막고 - -

공주 계룡 산은 부여 백야강이 수구 든 막고 -

문달 봉이 비쳤 으니 - 문장 배강이 눈겨 - 룬 가

장자 봉이 비쳤 으니 - 거부 장자가 눈겨 - 룬 다

충신 봉이 비쳤 으니 - 대 예강수가 눈겨 - 이로 -

譜 2

삼문어장만 2. = 90

堂 山 哭 소 리

인연은 참
한눈은 채보

